

보도시점 2025. 3. 21.(금) 16:00 배포 2025. 3. 21.(금) 13:00

##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,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현장 방문

- 새만금에 위치한 폐배터리 재활용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
-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인프라 확충, 규제 완화 등 추진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21일(금) 이차전지 재자원화(재활용) 기업인 성일하이텍(주)<sup>1)</sup>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국내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기업들과 간담회<sup>2)</sup>를 개최하여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.

- 1)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(리튬, 니켈, 코발트 등)을 추출하여 이차전지 소재기업에 판매, 국내 최대 재자원화 생산능력(연 1.6만톤) 보유
- 2) 성일하이텍(주), 고려아연(주), 포스코HY클린메탈(주), (주)에코프로씨엔지, 코스모화학(주), (사)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, 한국광해광업공단

이번 방문은 지난 12월 발표된 ‘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’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,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(리튬, 니켈, 코발트 등)을 추출하고 재활용하는 재자원화 산업현장을 시찰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다.

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핵심광물의 수입 다변화와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한 축을 담당할 중요 분야라고 강조하였다. 아울러,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,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또한, 재자원화 산업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, 그 간 폐기물로 인식되어 온 재자원화 원료들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.

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표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	최지영 (044-215-787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진 (minjin11@korea.kr)
담당 부서	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태훈 (044-215-7880)
		담당자	사무관	고상덕 (s9802102@korea.kr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